

6·25전쟁 초기 장사상륙작전의 전개과정과 성격*

양 영 조**

1. 서 언
2. 유격대의 편성과 훈련
3. 장사상륙작전 계획과 준비
4. 장사상륙작전 전개과정
5. 결언-장사상륙작전의 성격

1. 서 언

1950년 9월초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장군은 전세를 일거에 역전시킬 인천 상륙작전을 한창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동부전선을 방어하던 한국군 제1군단을 포함하여 낙동강방어선 일부가 돌파될 위기를 맞고 있었다. 특히 한국군 제1군단 예하의 국군 제3사단이 구룡포로 해상 철수한 후 포항 남쪽에서 북한군 제5사단과 대치하였고, 포항 서쪽의 안강 지역에서는 수도사단 예하부대들이 북한군 제12사단에 맞서 분전하고 있었으나 경주마저

* 이 글은 2009년 6월 22일 경북 영덕군과 장사상륙참전유격동지회가 공동 주관한 『장사상륙작전 학술세미나』(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글을 일부 보완한 것이다.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이때 육군본부는 포항지역 방어선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1개 대대 규모의 유격대를 해상으로부터 장사동 해안에 투입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육군본부의 계획은 유격대대를 투입하여 “한국군 제3사단이 포항 남쪽에서 공격을 개시할 때, 적의 후방을 교란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¹⁾ 장사 부근의 지형적인 특징은 동해안 포항 북쪽 약 25km 지점에 위치한 좁은 해안이고, 서남북의 삼면이 산악으로 둘러싸인 분지형태라는 것이다. 장사 남쪽에 위치한 지경리 고지와 북쪽의 부흥리 고지는 해발 200m로서 당시 북한군이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장사상륙계획은 당시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하던 유엔군사령부 지휘계통으로 부산에 있는 한국 해군의 미군 수석 고문관 루시(Michael I. Luosey) 중령에게 지원 지시가 내려질 만큼 유엔 해군과 사전에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진 작전이었다.²⁾

이 작전이 계획될 때 서해안에서도 유사한 작전이 전개되고 있었다. 즉 1950년 9월 12일 밤 전북 군산 해안에 미 육군의 엘리 대령이 지휘하는 미군과 영국군 연합상륙부대가 인천상륙작전을 기만하기 위해 양동 상륙작전을 감행한 것이다. 이 작전은 상륙돌격의 일환인 것처럼 북한군을 기만하기 위해 군산 해안정찰까지 시도한 양동작전이었다. 그러나 상륙부대가 상륙하자마자 북한군에게 노출되어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지원요청을 받은 유엔 함대와 항공기가 출동하여 북한군을 제압하였다. 결국 군산상륙부대는 3명의 사상자를 내고 13일 새벽 특별한 성과 없이 철수하고 말았다.³⁾

1)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ctong, North to the Yalu*. USGPO, 1961, p.568.

2) Walter Karig, Malcolm W. Cagle and Frank A. Manson, *Battle Report: The War in Korea*(New York: Rinehart, 1952), pp.211~222. 최초에는 미 제8213특공중대에게 상륙작전의 임무가 부여될 예정이었으나 국군 제3사단으로 변경되었으나 제3사단도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밀양에서 훈련받고 있는 유격대를 선정했다고 했다. Ed. Evanhoe, *Dark Moon: 8th Army Special operations in the Korean War*(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55), pp.25~27; 조성훈, 『한국전쟁시 유격전사』, 2003, 군사편찬연구소, p.96. 이 자료 이외에도 2009년 10월 1일자 MBC에서 제작 방영한 「장사상륙작전 다큐멘터리」에서의 한국군 및 미군 참전자 및 관련자 인터뷰 내용도 참조가 된다.

3) Walter Karig, *Battle Report: The War in Korea*, pp.211~212.

이 무렵 대부분의 유엔 해군의 함정들은 인천상륙작전을 위해 인천방면으로 투입되었지만, 일부의 화력지원함정들이 동서해안의 전선부대를 지원하는 동시에 인천상륙을 기만하기 위한 작전을 실시하고 있었다. 서해안기동전대(앤드류스 소장)와 동해안기동전대(하트만 소장)가 각각 동서해안에 함포사격을 집중하였다. 동해안 하트만 제독의 함정들은 9월 14일~15일 삼척 일대를 집중적으로 포격하였으며, 특히 15일 한국해역에 최초로 도착한 미조리(Missouri)함이 헬레나함과 브러쉬함에 합류하여 16인치 함포로 삼척 일대의 도로와 집결지, 보급소 등을 강타하였다.⁴⁾

본고에서는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기만하고 안강-포항 일대의 한국군 제1군단의 위기를 타개하는데 크게 기여한 장사상륙작전의 전개과정과 성격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관해서는 몇 편의 연구들이 있으나, 부대편성과 명령, 그리고 상륙작전 전개과정에 있어서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⁵⁾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와 1차 자료 및 참전자들의 증언 등을 기초로 하여 장사상륙부대의 편성과 훈련, 상륙작전의 전개과정, 그리고 상륙작전의 성격 등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유격대의 편성과 훈련

(1) 유격대의 부대 편성

6·25전쟁이 발발한 직후 전황이 급격히 악화되어 수도가 대구로 이전되

4) 6·25전쟁에서 참전하여 활동한 미조리(Missouri) 함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함정 중의 하나이다. 미조리함은 5년 전 일본의 항복을 받기 위해 도쿄만에 머물러 있었고, 5주전 순항훈련 중 1950년 9월 15일 동해안에 도착하였다. Walter Karig, *Battle Report: The War in Korea*, p.244.

5) 해군본부 전사편찬감실, 『해군사』 제1집, 해군본부, 1954; Walter Karig, *Battle Report: The War in Korea*;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3권, 국방부, 197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전투사: 인천상륙작전』, 국방부, 1983; 육군본부, 『한국전쟁과 유격전』, 육군본부, 1995; 육군본부 『한국전쟁 시 학도의용군』, 1994; 조성훈,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군사편안연구소, 2003.

자,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여 참전하였다. 특히 대구로 피난 온 전국의 많은 학생들이 조국을 지키고자 자발적으로 참전을 지원하였다. 전쟁 전 기간 가운데 이 시기가 가장 많은 학도의용군들이 참전을 지원하여 활동하였다. 전쟁초기 한국군은 병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격대의 편성은 이들 학도의용군의 지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통상 육군본부 정훈감실이 수천 명의 학도기간대원들의 자원을 기초하여 유격대 편성을 지원하거나 협조하였다.

전쟁 초기 유격전의 필요성은 최초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먼저 제기된 바 있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이전인 8월 초에 이 대통령은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장군에게 북한군 후방에서 상륙작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많은 한국청년들이 싸울 의사가 있으며, 심지어 유격대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⁶⁾ 이에 개전 직후 임명된 육군 총참모장 정일권 소장도 이 대통령의 발언 직후 예하부대에 유격대를 편성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유격대를 편성하여 신속하게 북한군 후방에 침투시켜 동부전선의 포항지구에서 북한군의 공세를 차단할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군 내에는 다양한 형태의 유격대가 편성되기 시작하였다. 즉 육군본부 직할 유격대, 일선 부대 유격대, 낙오병 등으로 편성된 유격대 등 여러 형태의 유격대가 편성되었다.⁷⁾ 육군본부는 적의 남진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후퇴하는 정규군의 병력을 정비 및 재편하는 한편 유격대를 편성했다. 유격대의 창설 시기는 전세가 매우 어려웠던 전쟁초기 북한군의 남진시기 주로 편성되었으며, 유격대원들은 모두 단기간 작전을 위주로 하고 북한군 후방에서 조직을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유격전을 전개하지는 않았다.

전쟁 초기 유격대는 대체로 육본 직할 유격대와 육본 독립 유격대로 구분된다. 먼저 육본 직할 유격대로는 유격사령부, 을지병단, 결사유격대, 제

6)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에게」(1950.9.9), 『대한민국사료집』 제29집, 국사편찬위원회, pp.339~340.

7) 조성훈,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p.81.

9172부대 등이 있다. 유격사령부 예하 유격대는 북한군 후방을 교란하기 위한 부대라기보다는 패잔병과 좌익 빨치산에 대한 토벌작전을 위한 부대로 북한군 유격부대에 대치한다는 의도에서 편의상 부여한 수준이었다. 육본직할 유격대대는 6개 대대로 편성되었으나, 각 대대가 일시에 편성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임시로 창설된 후 1950년 10월초 유격사령부가 창설된 것이었다.

유격사령부는 사령관이 전 청년방위군 고문단 김관오 대령, 참모장이 전 선호 대령이었으나 조직이 완전하게 편성된 상황이 아니었다.⁸⁾ 김관호 대령은 중국 군관학교인 운남강무당을 졸업한 후 장개석 국민당군에서 대령까지 진급하였고, 참모장 전성호 대령은 일제시기 독립군의 하나인 북로군중대장을 역임했다. 이들의 편성은 유격전의 경험을 고려한 것이었으며, 이들을 통해 훈련과 장비가 부족한 대원들을 효율적으로 지도하도록 한 것이었다.⁹⁾

한편 육본 독립 유격부대로는 유격총사령부 예하 제1, 제1유격대대가 있었다. 유격대총사령부(최윤동 의원)는 거의 이름뿐인 사령부에 지나지 않았으나 병력을 모집하여 유격대를 편성하거나 육군본부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¹⁰⁾ 1950년 8월 초순 육군본부 작전국장 강문봉 대령은 작전계장 방원철 소령에게 예비 병력을 동원하여 유격대를 편성하라는 지시를 하달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편성된 부대가 육군 독립 유격대대였다.¹¹⁾

육본 독립 제1, 제2유격대대는 육본직할 유격대대와는 달리 육군 정훈감실의 협조로 조직된 학도기간대원 가운데 일부가 북한군 후방에 침투시킬 유격대로 육본 독립대대로 편성된 것이었다. 이들은 유격총사령부 예하로

8) 육군본부, 「특별명령」 제191호(1950.9.18).

9) 조성훈,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pp.85~86.

10) 하명윤, 『내 생애의 여적』, 2002, p.59. 일부 참전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밀양에 유격총사령부(사령관 최윤동)가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자료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것은 육군 직할 유격사령부(원주)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보인다. 최윤동 의원은 최세창 장군의 부친으로 일제시기 독립운동을 했고 제헌국회의원을 역임하였다. 조성훈,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p.97.

11) 방원철, 『무명용사의 열혈전기실기』, 1958, pp.243~244.

편성되었으며 육본 작전교육국장 강문봉 대령 명의로 조직된 유격대였다.

이들 중 독립 제2유격대대는 육본 정훈감실 문이정 소령이 편성한 부대였다. 문 소령이 경상북도 학도기간대를 창설하여 대구지역 중학교 3학년 이상 학도호국단 간부를 중심으로 학생들을 모집하여 편성한 것이었다. 대원들 가운데에는 일부 피난민도 있었으나 90% 이상이 경북지역 출신 학생들이었다. 때문에 대원들은 자신의 부대를 학도병부대로 인식했다.¹²⁾ 이 부대는 영천 금호초등학교에 주둔했다가 잠시 대구에서 훈련을 한 후 8월 20일 밀양으로 이동하여 독립 제2유격대대로 편성되었다. 제2유격대대는 얼마 후 9월 8일 동해지구경비사령부 제1경비대대로 재편되어 9월 하순까지 전술교육을 받았으며, 밀양에서 부산까지 기차로 이동하였다. 그 후 이들은 10월 8일 부산항에서 강원도 죽변 지역에 상륙하여 주변 일대의 공공시설을 경비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¹³⁾

다음으로 독립 제1유격대대는 육본 계엄민사부 동원과장 이명흠 대위가 편성한 부대였다. 이 부대는 이 대위가 대구역 광장에서 학생들을 모집하여 창설한 유격대였다. 이들은 대구역 광장에 나가 적극적으로 모병운동을 전개하여 많은 학생들을 모집하였다. 독립 제1유격대대의 편성에는 이명흠 대위의 역할이 컸으므로 먼저 그에 관한 이력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명흠(후에 이종훈으로 개명) 대위는 육사 제5기생으로서 전쟁 전에 소위로 임관하여 전방에서 소대장, 중대장을 마친 후 국방부 내에 정훈국이 창설될 때부터 정훈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다. 전쟁 직전 서울시내 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사상범과 이북에서 월남한 젊은이들을 한 곳에 모아서 교화하는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전쟁이 발발한 후에는 1950년 8월경까지 대구를 중심으로 군·관·민의 사기양양, 적군의 귀순공작 등 선무공작을 주로 전개하였다. 당시에 그는 국방부 정훈국 '대적공작대장'(對敵工作隊長)이라는 직책을 수행하면서 유격부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12) 이 부대의 단대호는 참전자 증언과 자료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하명운의 증언내용에 따라 제2유격대대로 기술한다. 하명운, 『내 생애의 여적』, p.59.

13) 육군본부, 『호국용사 6.25참전 전투수기』 4, 육군본부, 2000, p.340.

되었다. 특히 그는 북한군이 전면공격 전에 항상 유격대를 후방에 침투시켜 아군을 교란시킴으로써 국군과 유엔군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즉시 유격대 조직의 필요성을 정훈국장 이선근 대령에게 건의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였다.

그러던 중 이 대위는 보직이 변경되어 육군본부 계엄민사부 동원과장으로 모병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¹⁴⁾ 그는 계속하여 유격대 편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육본 작전교육국장 강문봉 대령에게 이를 건의하였다. 그는 마침내 아군이 낙동강전선에서 위기를 맞고 있던 1950년 8월 중순경 유격대를 조직하도록 육본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 대위는 최초 강칙모(후에 함북 지사)의 대한애국단 단원 몇 명을 인수하여 이들과 함께 대구시내에서 대원들을 모집하였다.¹⁵⁾ 이 대위는 대구역 앞에 있는 광장으로 나가 모병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인파로 북적대는 틈바구니 속에서 마이크를 잡고 3일 동안 밤낮없이 “조국을 우리 학생의 힘으로 지키자”고 외쳤다. 당시에 대구 계성중학교 3학년(19세)으로서 자원했던 강정관(현 유격동지회 부회장 겸 대구 지회장)은 자신의 유격대 참여 동기와 경위를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¹⁶⁾

당시에 학교는 휴교 중이었다. 매일 학교에 나가서 지키고는 있었으나 전세는 더욱 아군에게 불리해지는 듯이 보였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서도 나라 없는데 학교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자원입대를 결심하고 유격대 모병소를 찾아갔으나 너무 어리다고 하면서 학교장의 추천서를 요구하였다. 당시 계성중학교 신태식 교장 선생님을 찾아뵙고 나의 생각을 말씀드리니까 기꺼이 추천서를 써주시기에 이를 받아들고 곧바로 모병소로 다시 가서 입대수속을 하였다. 나는 무남독녀의 몸이라 차마 부모님께 직접 말씀드리지도 못한 채로 나의 교회 및 동리 친구 12명과 함께 유격대에 입대하였다.

14) 육군본부, 『한국전쟁과 유격전』, p.55.

15) 육군본부, 『한국전쟁과 유격전』, pp.55~56.

16) 육군본부, 『한국전쟁시 학도의용군』, p.132.

특히 이 시기는 대구 시내에 북한군 박격포의 포탄이 십여 발 떨어져 정부와 주요 군사령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등 가장 위기의 순간을 맞고 있었다. 이때 많은 피난민들이 다시 짐을 꾸려 남하하기도 하였지만, 일부의 시민들은 군에 자원하여 나가고 있었다. 이에 고무되어 많은 수의 학생들도 군의 모병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 대위는 모병 장소에 온 인원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 사상이 건전하며 키가 크고 담력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심사를 거쳐 선별했다.

대구역 광장에는 상당수 인원이 모병에 응해 자원하였다. 그는 간단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200명을 선발하여 당시 유격대총사령부가 위치한 밀양으로 향하였다. 이들은 대구역에서 화물열차를 이용하여 1950년 8월 24일 16:00경에 밀양역에 도착하였다. 밀양에 도착한 대원들은 역에서 약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농협 미곡창고로 이동하였다. 여기서 이들은 가마니 2장씩을 받아 취침준비를 하고 23:00쯤 되어서야 주먹밥 한 덩어리로 허기를 채울 수 있었다. 대부분 부모 곁을 처음 떠난 학생들이니 어려움은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첫 날을 보내고 부대편성을 위해 어느 정도 준비를 한 후 도착한 3일이 지난 후 8월 27일 대대 편성을 단행하였다. 부대 편성에는 당시 제헌의원으로서 밀양에서 유격대총사령부를 조직하여 유격대원 모병운동과 부대편성을 지원하던 최윤동 의원의 역할이 컸다. 그는 국군이 후퇴를 거듭하자 밀양에서 영남지역의 청년들을 개인적으로 규합하여 일종의 유격부대를 편성하고 있었다. 제1유격대대의 전체인원은 처음부터 대구에서 모집된 200명과 밀양에서 최윤동 의원에 의하여 이미 모집되어 있던 학생과 청년 560명이 합쳐져 최종적으로 772명이 편성되었다.¹⁷⁾

17) 이명흠 대위와 최윤동 의원이 모집한 유격대 인원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 편이다. 육군본부, 『한국전쟁 시 학도의용군』, p.133에서는 이 대위가 대구에서 560명, 밀양의 최윤동의 160명 혹은 200명을 합하여 772명을 편성하였다고 기술하였고, 최재명의 증언에 의하면, 최윤동 의원이 1,000여명을 모집하여 이 가운데 560명만 대원증을 받았다고 하였다. 최재명, 『버림받은 충혼』, 1993, p.6: 이명흠 부대장은 제1유격대대가 1951년 2월 육군 정훈 제1대대로 전환되자 제1유격대대의 772명을 기념하여 제772부대로 제정했다고 진술했다.

독립 제1유격대대 부대장은 이명흠 현역 대위였고 부대 통상명칭은 부대장 이명흠의 ‘명’자를 따서 명부대라 하였다.¹⁸⁾ 밀양에서 제1유격대대를 편성할 때에는 대대본부 및 예하 3개 중대 편성으로 이루어졌지만, 아래의 명부대 편성은 실제 상륙작전에 투입되기 직전(9월 13일) 편성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이 부대에는 유격전 전문가로 알려진 전성호 현역 대령이 전술고문으로, 전 중국 국민당군 소장출신이며 민간인 신분인 박영선을 정략고문으로 편성하였다. 이들이 어떤 연유로 명부대의 고문으로 편성되었는지는 명확치 않지만 미처 훈련되지 않은 유격대원들의 상륙작전을 지도하기 위해 육본에서 지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명부대의 주요 편성은 다음과 같다.

부대 고유 명칭 : 육군 독립 제1유격대대
 부대 통상 명칭 : 명부대
 총사령관(대대장) : 육군 임시 소장 이명흠(현역 대위)
 전술고문 : 육군 현역 대령 전성호
 정략고문 : 전 국민당군 소장 박영선
 참 모 장 : 육군 임시 대령 백운봉(유격대 부관)
 본부사령 : 육군 임시 소령 조 경
 인사참모 : 중령 이수희
 작전참모 : 중령 김응록
 정보참모 : 중령 이응삼
 군수참모 : 중령 이태호
 정훈부장 : 소령 서상덕
 의무부장 : 소령 이봉구
 통신부장 : 소령 권찬두
 연 락 관 : 현역 중위 이흥배
 제28연대장(제1중대) : 육군 임시 대령 이영훈(9월 14일부 이수희)

18) 명부대의 창설 명령은 국본 「일반명령」(육) 제72호에 의거하여 4283(1950년)년 9월 18일 00시부로 사후에 이루어진 조치였다.

제29연대장(제2중대) : 육군 임시 중령 문학경
제32연대장(제3중대) : " 대령 이원직
제37연대장(제5중대) : " 대령 오운환

명부대는 4개 중대로 편성된 대대규모의 부대였으나 북한군을 기만하기 위해 부대 규모를 대대를 사단으로, 중대를 연대로 각각 위장하여 편성하였고, 지휘관 및 계급도 위장하여 부여하였다. 각 연대병력은 180여명으로 편성되었으며, 부대장은 동해안지구소공총사령관, 부관은 참모장, 제1중대장은 제28연대장, 제2중대장은 제29연대장, 제3중대장은 제32연대장, 제5중대장은 제37연대장으로 각각 호칭되었고, 계급도 임시 대령으로 부여했다.¹⁹⁾ 독립 제1유격대대는 유격대원들 중에서 약 80%에 해당하는 600여명이 주로 18, 19세에 불과한 학생들이었고 심지어 15세의 어린 학생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²⁰⁾

(2) 유격대의 훈련

독립 제1유격대대는 1950년 8월 27일 편성 당일부터 훈련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중고등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으므로 기초부터 구보와 제식훈련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개인화기는 고사하고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주로 체력단련이나 정신교육을 위주로 교육을 받았다. 유격전과 특수작전 훈련 시에는 전 인민군 장교출신 국군 박창암 중위가 2명의 현역 사병과 함께 와서 유격대대를 지도하였다.²¹⁾

19) 이명흠 부대장은 장사상륙작전이 끝난 후 뒤에 1951년 4월경 부하들의 계급사칭을 방지했다는 이유로 대위로 강등 당했다고 했으나(『무명용사의 열혈전투실기』, pp.78~79), 명부대 뿐만 아니라 통상 유격대 대원들의 계급은 적을 기만하기 위해 원계급보다 높게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독립 제1유격대대원들은 작전개시 후인 9월 18일 정규군으로 입대명령과 군번이 부여되었으며, 군번은 0365427-6157번이었다. 조성훈,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p.99.

20) Walter Karig, *Battle Report: The War in Korea*, p.248.

21) 일부에서는 독립 제1유격대대의 군사훈련은 방원철 소령이 담당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유격대는 비록 부대편성 직후 장비나 훈련 등 여러 가지가 미비하였지만, 본인들이 직접 자원하였기 때문에 정신력만큼은 충만해 있었다. 유격대원들의 정신력은 훈련과정에서 육체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훈련일정은 짧았으나 훈련내용은 비교적 강도 높고 밀도가 있는 편이었다. 훈련 과정에서 사격훈련 도중 조교 2명이 사망하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²²⁾

밀양에서 독립 제1유격대대의 훈련은 짧은 일정으로 끝났다. 훈련을 시작하지 일주일 후인 8월 31일에 명부대는 육군본부 작전국장 강문봉 대령으로부터 밀양에서의 훈련을 중단하고 즉시 부산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이다. 이들은 작전국장의 지시에 따라 부산으로 이동하였고, 부산 문현동에 있던 육군본부 청사 내에서 숙식하며 대기하면서 훈련을 계속하게 되었다.

명부대는 육군본부 작전국장 강문봉 이름으로 발행된 '육본직할 유격대원'이란 대원증을 발급받고 본격적으로 유격훈련에 재돌입하였다. 여기에서는 밀양에서의 훈련에 비해 좀 더 체계 있고 전문적인 유격전 훈련내용이 마련되었다. 훈련은 크게 두 분야 즉 정신교육과 전술교육으로 구분되어 실시되었다. 전자에서는 국가관을 함양시킨다는 목적 하에 민주주의 이념과 민족문화사 등이 교육되었으며, 후자에서는 군사학, 병기조작법, 사격술, 소대 및 분대공방, 교량 파괴법, 토치카 파괴법 등 주로 유격대 활동에 필요한 훈련이 실시되었다. 이 외에 북한군후방지역에서의 작전 시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장백산 줄기줄기...'로 시작되는 빨치산 군가와 함께 몇 곡의 인민군 군가를 학습하였다.

훈련 시에 사용된 장비는 대부분 북한군으로부터 직접 노획한 북한군 장비였다. 대원들은 소련제 소총을 비롯하여 기관총, 막심중기관총, 박격포 등의 장비와 북한군 복장으로 무장하였다. 그러나 훈련은 또다시 미처 약 2주일도 되지 못해 끝나고 말았다. 나중에 알려진 것이지만, 이때 이미 명부대의 실전 투입이 논의되고 있었던 것이다.

22) 조성훈,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p.98.

3. 장사상륙작전 계획과 준비

(1) 장사상륙작전 계획

이명흠 부대장은 육본에서 부대를 훈련시키던 중 1950년 9월 10일경 작전국장 강문봉 대령의 호출을 받았다. 그는 실전에 참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왔지만 강 국장으로부터 전혀 이해하기 어렵고 실행 불가능한 임무를 지시받았다. 강 국장은 회의용 탁자위에 놓여 있는 군사지도(5만분의 1) 지도상의 어느 한 지점을 응시하며 명부대장에게 그 지점으로 상륙작전을 전개할 것을 지시하였다. 포항북쪽 적의 후방지역에 위치해 있는 장사 해안이었다. 강 국장은 육해군총사령관 겸 육군 총참모장인 정일권 소장으로부터 유격대를 투입하라는 명령을 받고 장사상륙작전을 지시하기 위하여 이명흠 대위를 호출한 것이었다.

명부대장은 강 국장으로부터 장사지역 상륙하라는 지시를 받고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상륙작전은 유격대 역량으로는 도저히 수행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득하였다.²³⁾ 이 대위는 훈련도 제대로 안된 대대급 유격대 병력으로는 이 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우며 자칫 유격대 대원들 전원이 희생될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 또한 포항-기계 일대에는 북한군 제12사단과 제5사단 등 북한군 정예부대가 전선을 돌파하기 위해 전력을 집중하고 있었고, 유격대의 작전지역인 영덕 남정면 장사리 일대에도 북한군의 방어진지가 편성되어 있었다. 때문에 그는 유격대대만으로 상륙작전을 전개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모하다고 생각하여 수차례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장사상륙작전 계획은 이미 육군본부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반복할 수 없는 작전이었다.

강 국장은 이명흠 부대장에게 당시의 전선 병력배치 상황을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정규부대로는 이 작전을 감행할 여유가 도저히 없음을 강조하였다.

23) 육군본부, 『한국전쟁 시 학도의용군』, p.133.

이 무렵은 나중에 알려진 바이지만, 유엔군사령관의 단호한 지시 하에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할 시점에 있었으며, 이를 위하여 가용한 병력이 모두 동원되었기 때문에 장사지역에 상륙시킬 마땅한 여유 병력이나 부대가 없는 상황이었다. 강 국장의 요점은 현재의 상황에서 포항지구에 공세를 취하고 있는 북한군 제2군단의 공격을 견제하고 아울러 전면적인 아군의 반격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독립 제1유격대가 장사에 상륙하여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그곳을 거점으로 유격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에 지나지 않았다. 그 내면의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위하여 적의 관심을 동해안에 묶어 두자는 것과 적의 보급로를 차단함으로써 부산을 압박하는 북한군 제2군단의 공격예봉을 꺾는다는 것이었다. 강 대령은 불원간 유엔군에 의한 대규모 상륙작전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 대위에게 암시적으로 전달해 주었다. 강 대령의 간곡한 지시에 처음에는 완강하게 불가함을 표명하던 이명흠 부대장은 육본의 결정사항이고 작전의 의미가 적지 않다는 것을 듣고 난 후 결국 수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막내 동생과 같은 어린 학생들을 사지로 내보내야 하는 악역을 맡게 되었던 것이다.²⁴⁾

마침내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74호(1950. 9. 10)에 의거하여 출동명령이 하달되었다. 그 내용은 독립 제1유격대대를 동해안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 해안에 적전 상륙을 전개시켜 북한군 제2군단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아울러 적의 후방을 교란한다는 것이었다. 즉 교량을 파괴하여 북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총 반격작전 시 적의 퇴로를 차단한다는 것이었다.²⁵⁾ 육군본부의 작전명령문은 장사상륙작전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건이므로 아래와 같이 전문을 소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4) 위와 같음.

25) Walter Karig, *Battle Report : The War in Korea*, p.244.

군사극비

육본 작명 제174호, 육군본부 경남부산, 4283.9.10.16:00

1. (1) 적 약 2개 사단은 포항(1234-1461) 안강(1220-1455) 선을 점령하고 계속 남침을 기도하고 있음.

(2) 아군 제3사단은 차 적에 대하여 맹렬한 섬멸을 전개하고 있음.

2. 군은 일부 부대를 이동하려 함.

3. (1) 육본 직할 유격대장은 예하 제1대대를 D일 H시 P장소에 상륙을 감행시켜 동대산(1225-1493)을 거점으로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여 제1군단 작전을 유리하게 하라.

(2) 세부는 작전교육국장으로 하여금 지시케 함.

4. 행정사항

(1) 보급

가. 제3사단장은 유격대장과의 연락에 성공하면 유격대에 대한 보급을 담당하라.

(2) 후송 및 의료

가. 제3사단장은 유격대장과의 연락에 성공하면 유격대에 대한 후송 및 의료를 담당하라.

(3) 수송

가. 별도 군수국장의 지시를 받으라.

5. 통신사항

(1) 제51통신대대장은 좌기 인원과 기재를 동 동격대대에 파견하라.

1) 인원

선임하사관 1명, 무선통신사 2명(SCR694용), 무선통신사 5명(SCR300용), 암호병 1명, 무선정비병 1명, 유선가설병 2명, 계 12명

2) 기재

SCR694 1대

(2) 유격대대장은 우기 인원을 장악 지휘하라.

(3) 유격대대장은 제1군단지휘무선망을 경우 육본과 연락하라. 통신제원은 별도 지시함.

(4) 제1군단장은 우 유격대대와 육군본부와의 무선통신을 군단 지휘망을 이용 중계하라(단 현 군단지휘망의 변동은 없으며 단지 우 유격대대와의 군단 지휘망 내 가입뿐이며). 전 대대호출부호는 XF2임.

(5) 제4항 실시는 전 대대가 P 점 도착 즉시로 개시하라.

(6) 유격대대장은 기타 세부지시를 육본 통신감실에서 수령함과 동시에 항공기와의 연락규정 수령 차 장교 1명을 출두케 하라.

(7) 제1항 기입 이외 필요 통신기재도 통신감실에서 수령하라.

총참모장 육군 소장 정일권(직인)

하달법 : 구달 후 인쇄 배포

배포구분 : 국방부 1부, 국방부 1부, 제1유격대, 1부, 인사국 1부, 정보국 1부, 선전국 1부, 토신 1부, 보관 1부 등.

육군 총참모장 정일권 소장은 독립 제1유격대대에게 상륙작전을 전개하여 동대산을 거점으로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여 제1군단 작전을 유리하게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작전에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작전교육국장 강문봉 대령이 조치하도록 명령하였다. 이 명령에 따라 강 국장이 명부대장을 호출하여 작전의 취지를 설명하였던 것이다.

총참모장 명의로 된 작전명령은 먼저 구두로 전달된 후 추후에 문서로 정리하여 하달된 것이었다. 따라서 명령문이 작전되기 전에 이미 작전국장은 총참모장과 논의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명흠 부대장의 증언에 의하면, 9월 12일 육군본부 작전교육국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명령을 하달 받았다고 하였다.²⁶⁾

- ① 임무 : 동해안 영덕지구로 상륙하여 북한군 제2군단(군단장 김무정)의 후방을 교란하라.
- ② 작전 개시일 : 1950년 9월 13일²⁷⁾
- ③ 보급 : 제1군단에서 수령하라. 곤란할 시에는 항공보급을 실시한다.
- ④ 상륙작전대책 : 대형 LST를 이용한다. 상륙전을 감행하기에 앞서 상륙지구 전역에 걸쳐 항공기 폭격 및 해군 함포사격을 실시, 적을 섬멸한 다음 상륙을 개시한다.
- ⑤ 전술 고문관으로 전성호 대령을 파견한다.
- ⑥ 통신 : 통신감실에서 12명으로 편성된 무선전신반을 배속 받아 국군 제1군단 지휘 무선망을 경유 육군본부와 통신을 유지하라.

작전지역에 대한 상륙방법은 대형 LST를 이용하며, 유격대의 상륙전 감행 직전에는 상륙작전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유엔군 항공기의 지원도 계획되어 있었다. 명령에 의하면 연락장교 1명을 포함하도록 조치하고 있었다.

이 작전에 참여한 유격대원들은 미처 훈련조차 끝마치지 못한 자신들에게 총참모장을 비롯하여 군 수뇌부가 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는지 그리고 작전개시일이 왜 9월 14일인지에 대하여 그 이유를 알 리가 없었다.

26) 육군본부, 『한국전쟁서 학도의용군』, pp.56~57; 『무명용사의 열혈전투실기』, pp.65~66.

27) 장사상륙작전 개시 일자에 관해서 이명흠 부대장은 9월 13일로 증언하였으나, 해군본부 전사편찬감실, 『해군사』 등 여러 공식 문헌에 의하면 1950년 9월 14일로 확인된다.

실제로 상륙전이 실행되고 부대가 부산으로 철수한 후에야 이들은 자신들의 상륙전이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수행된 일종의 양공작전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9월 12일에 출동준비를 위해 명부대 대원들은 부산하게 움직였다. 1인당 3일분에 해당하는 피복과 식량, 그리고 토치가 파괴용 폭약 및 각종 탄약이 운반되어 곧바로 대원들 각자에게 분배되었다.²⁸⁾ 영문도 모르는 학생대원들은 들뜬 마음으로 보급품을 수령하였다. 어떤 학생은 이제야 진짜 군인과 같이 제대로 무장을 하게 되었다고 좋아하기도 했으며, 어떤 학생은 다소 당황하고 두려움에 젖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자원한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각오가 남달랐다.

이튿날(9월 13일) 오전에 출동을 위한 부대편성이 있었다. 이때 편의상 제1유격대대를 사단규모의 병력으로 확대 가정하여 편성하였다. 사단 예하 각 연대를 약 180명으로 편성하고 지휘관은 이에 적합한 계급장을 임시로 부착하도록 하였다. 일반 대원들 마찬가지로 각각 임의로 계급장을 부착하도록 지시되었다. 명부대 대원들 대부분은 정식으로 군번도 부여되지 않았고 계급도 없는 민간인 상태였지만 작전 수행을 위한 부대편성을 완료하였다.

(2) 상륙작전 준비

1950년 9월 14일 오전 독립 제1유격대대는 육본 연병장에서 출동준비를 완료하였다. 이날 한국 육군은 육해공 총사령관 겸 육군 총참모장 정일권 소장과 다수의 군 장성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을 거행하였다. 통상 유격작전을 계획할 때에는 엄격한 보안이 유지된 가운데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장사상륙작전의 경우는 특이하게도 완전히 계획을 노출시킨 채 추진하였고 심지어 출정식 행사에 육군 최고수뇌부까지 참석하여 주목을 끈 것이다.

28) Walter Karig, *Battle Report: The War in Korea*, p.243에 의하면, 유격대는 식량도 없이 오직 탄약 50여발 정도만을 수령한 채 장사동으로 상륙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출정식에 참석한 유격대 대원들은 좁은 육군본부의 연병장에 질서정연하게 집합하였다. 이들 전원은 출동에 앞서 각자의 머리카락, 손톱, 발톱의 일부를 잘라서 봉투에 넣어 육본에 보관시켰다. 작전지역으로 출동하기에 앞서서 죽음을 각오하지는 결의의 표시였다. 이들은 시간이 충분치 않아 제대로 훈련을 마치지도 못했고 대부분 어린 학도의용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실제 이들의 정신력만큼은 하늘을 찌를 듯하였다. 유격대의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군 제51통신대대에서 통신병 12명을 차출하여 배속하였다. 이들을 통해 상륙부대와 사령부와의 통신연락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장사상륙작전의 출정식 행사를 대대적으로 거행한 것은 당시 전선 상황, 즉 인천상륙작전과 낙동강선 총반격작전 계획과 관련시켜 볼 때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즉, 적의 오열에 부산에서 상륙작전을 준비 중이라든지 동해상에 상륙작전을 실시할 것 같다든지 하는 오보를 흘려 적어도 포항 일대의 북한군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위협한다든지 또는 인천상륙작전을 기만하려는 의도를 갖고 행해진 것이다. 이미 서해상에서는 이틀 전 인천상륙작전을 적에게 기만하기 위해 미군과 영국군 연합부대가 군산에 양동상륙작전을 전개한 바 있었다.²⁹⁾ 일개 대대규모의 그것도 현역 병력이 아닌 학병으로 구성된 유격대의 출정에 총참모장까지 참석하여 출정식을 하였다는 사실은 출정식 자체보다는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음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장사상륙작전 계획도 군단 또는 사단에서 계획한 것이 아니라 육군본부의 정일권 총참모장 명의로 직접 하달된 것이었다.³⁰⁾

출정식을 마친 후 대원들은 육본 식당에서 마지막 점심을 하였다. 이들은 곧바로 군용트럭에 분승하여 부산항 제4부두로 이동하였다. 부두로 이동하는 도중에도 학도병들은 연도에서 시민들로부터 열렬히 환송을 받았다. 이동하는 장면도 여느 다른 유격대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통상 유격작전은 극비리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오히려 드러내놓고 광고하는 격

29) Walter Karig, *Battle Report: The War in Korea*, pp.211~212.

30)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74호(1950.9.10.16:00).

이었다. 작전을 위해 이동 중이라는 것을 짐짓 노출시켰던 것이다.

제4부두에 도착하였을 때 유격대원들은 자신들과 운명을 함께 할 약 2,700톤에 달하는 LST 문산호(대한해운공사 소속)가 부둣가에 정박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³¹⁾ 부두에 도착한 유격대원들은 육군본부 작전국 장교들의 통제 하에 승선준비를 갖추었다. 이때 유격대원들은 부두에서 몇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점들을 목격하였다. 즉, 부두에는 유엔군에 소속 미군 병사들이 상당수 집결해 있음을 목격하였고 또 유격대원들은 이들과 함께 번갈라 문산호에 승선과 하선을 두세 차례 반복하도록 지시받았다. 대원들은 그것이 적을 기만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하고 지시대로 승선절차를 따라 승선을 완료하였다.

미군 병사들을 미리 대기시켜 놓았다는 것은 미군과 사전 협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미군 병사들에게 승선과 하선을 몇 차례 반복시켰다는 것은 미군도 문산호에 승선한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려는 뜻이 담겨져 있었음을 의미한다. 즉 적을 기만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이 무렵 유엔군이 대규모의 상륙 작전을 전개할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지점과 규모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였다. 이러한 적을 기만하기 위해 미군 병사들도 문산호에 승선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은 장사상륙 작전이 갖는 성격을 충분히 대변해 준다고 생각된다. 물론 학도병들이나 미군 병사들은 그러한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지시에 의해 별다른 불평 없이 승하선을 반복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9월 14일 오후 상륙부대는 육군 수뇌부에 신고를 한 후 16:00경

31) LST 문산호는 1943년 9월에 미국 인디애나의 제퍼슨빌에서 건조된 2,366톤의 LST-1 Class 전차 상륙함이었다. 이 함정은 건조 후 태평양 함대사령부에 배치되었으며 1944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있었던 마리아나 작전에 참가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많은 해전에 참전하여 활동하였다. 종전 이후 그 함정은 1946년 1월 임무가 해제되어 재고로 처리되어 보관되다가 1947년 2월 다시 한국정부에 매각되어 '문산함'이라는 새로운 함정의 이름을 부여받았다. 문산함은 대한해운공사에서 운영하다가 6.25전쟁이 발발하자 해군에 징발되었다. <http://www.betanews.net/bbs/read.html?tkind=6&lkind=45&num=313600>.

부산항 제4부두에서 LST 문산호에 승선을 완료하였다. 출발 당시 승선한 총인원은 명부대장 이명흠 대위 이하 독립 제1유격대대 772명, 육본 파견 제51통신대 통신병 12명, 문산호 선장 황재중 등 선원 42명, 해군 헌병 5명, 선박안내 미군 장교 1명(해리슨 중위)과 하사관 1명(쿠퍼 상사), 통역 1명, 전성호 대령과 연락원 3명, 민간 고문인 박영선 외 2명 등 총 841명이었다.³²⁾

4. 장사상륙작전의 전개과정

(1) 장사로의 항진과 상륙작전

부산항 제4부두에서 상륙부대를 실고 출항준비를 마친 문산호는 1950년 9월 14일 16:00 마침내 출항하였다. 병력을 가득히 실은 문산호(선장 민간인 황재중)는 미 해군 구축함 엔디코트함(Endicott, John C. Jolly)의 호위를 받으며 부산항을 북상하여 장사리를 향해 나아갔다.³³⁾ 문산호와 구축함 엔디코트함과의 통신망이라고는 해리슨 중위의 소형 휴대무전기뿐이었다.

동해 바다는 태풍 케지아의 마지막 영향으로 바람이 세차고 파도가 높은 편이었다. 작전 내용이나 행선지도 모르는 채 승선한 대원들은 처음 타보

32) 육군본부, 『한국전쟁과 유격전』, p.57에는 840명으로 기술하였으나, 이 숫자는 미군 하사관 1명이 빠고 계산된 수치이다. 『무명용사의 열혈전투실기』, pp.80~81에 의하면, 총답승 인원이 부대장, 4개 중대, 육본 통신병 12명 등 772명, 문산호 선원 42명, 해군 헌병 5명, 미군 고문 1명, 통역 1명, 전성호 대령과 연락원 3명, 민간 고문인 박영선 외 2명 등 총 828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772명에 통신병 12명을 포함시킨 기억의 착오라고 판단된다.

33) 일부 연구에서는 이명흠 부대장의 증언을 근거로 LST 문산호를 호위한 것이 영국 구축함 Q-34호라고 기술하고 있으나(육군본부, 『한국전쟁시 학도의용군』, p.58; 조성훈,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p.101), 이는 미 해군구축함 엔디코트(Endicott)함을 잘못 기록한 것이다. James A. Field, 김종기 역, 『미 해군 한국참전사』, 해군본부, 1985, p.269; Walter Karig, *Battle Report: The War in Korea*, p.24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3권』, p.64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인천상륙작전』, p.125.

는 군함과 선상에서 지급된 푸짐한 식사와 보급품에 다소 흥분한 듯하였으나, 어린 학생들을 사지에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부대장의 마음은 사뭇 달랐다.

문산호가 부산항 출발 후 약 1시간쯤 지나면서부터 배멀미하는 대원들이 속출하였으나, 몇 시간의 항해 끝에 마침내 9월 15일 새벽 장사리 해안에 접근하였다. 본래 LST는 주로 상륙에만 이용될 뿐 장거리 항해에는 부적합하였다. 문산호 선장은 9월 15일 새벽 05:00 무렵 상륙 목적지 해상 4Km 떨어진 곳에 도달했을 때 짙은 안개가 끼어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이때부터 바람이 일어 상륙을 개시할 때에는 파도가 더욱 높아졌다. 엔티코트함의 지시에 의해 즉시 투묘(닷을 내림)하여 착안하려 했으나 심각한 농무와 풍파로 인해 착안하기 어려웠다.

이때 갑자기 북한군이 장사동 북방 부흥리 고지와 남방 지경리 고지에서 상륙부대를 향하여 맹렬한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명흠 부대장은 선장실에서 지도를 펼쳐놓고 전성호 대령 등과 함께 상륙작전을 검토하고 있었다. 이때 북한군의 박격포탄이 선장실을 뚫고 들어와 전성호 대령을 비롯하여 몇몇이 부상을 입었으며 선장실의 기기와 주요 기관부가 파손되는 피해가 있었다. 불행하게도 유격전에 경험이 많은 전성호 대령은 적의 사격에 대퇴부에 부상을 입어 과다출혈로 전사하고 말았다.³⁴⁾ 문산호는 순식간에 적의 화력권에서 이탈할 수도 백사장에 델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명부대장은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특공대를 편성하였다.

34) 유격대의 전술고문인 전성호 대령의 전사 경위에 관해서는 관련 연구마다 다소 상이하게 기술하고 있다. 육군본부, 『한국전쟁과 유격전』, p.60에서는 17일 15:30경 문산호 선장인 황재중과 함께 작은 배로 남하하다가 전복되어 사망했다고 했으며, 전사편찬위원회, 『인천상륙작전』, p.127과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3권, p.650에서는 첫날의 재난에서 전성호 대령을 비롯하여 많은 병사들이 적의 사격을 받아 또는 심한 파도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육군본부, 『한국전쟁시 학도의용군』에서는 전성호 대령이 적탄에 대퇴부를 맞고 출혈이 심해 사망했다고 하여 전사경위를 각기 다르게 기술하고 있다. 이에 관한 고증은 현재 자료의 부족으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육군본부의 기록에 따랐다.

그는 먼저 7명의 특공조를 차출하여 문산호에 밧줄을 걸어 백사장에 있는 소나무와 연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는 통상 상륙작전 시 불가피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최후의 수단으로 대원들이 밧줄에 의지하여 상륙을 시도한다는 것이었다. 강풍으로 인해 밧줄을 잇던 몇 명의 대원들이 5~6m에 달하는 강한 파도에 휩쓸려 순식간에 희생되었다. 그들의 뒤를 이어 몇 명의 특공대원들이 다시 밧줄연결을 시도하였고, 이들은 결국 미 구축함 엔디코트함의 맹렬한 함포 지원사격에 힘입어 해안에 도달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문산호와 해안의 상륙지점간에 4조의 밧줄이 이어졌다.

상륙부대는 해안 약 30미터 거리에서 로프를 이용하여 상륙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바로 이때 북한군 진지에서 사격이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대원들은 적의 사격에 그대로 노출되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풍파는 더욱 심해지고 적의 포화 역시 더욱 맹렬해졌다. 결국 집중포화를 받고 있던 문산호는 05:30경에 선미가 파괴되면서 선체가 기울어지기 시작하였으며, 06:00경에 이르러 암초(북위 36도 16'30", 동경 129도 22'36"에 얽혀 선복에 구멍이 뚫린 채 썰기처럼 단단히 박혀 완전히 횡으로 완전히 좌초되고 말았다.³⁵⁾

문산호가 암초에 좌초되어 접안하지 못하였으나, 명부대장은 계속 상륙을 독려했다. 대원들은 밧줄을 의지하여 빗발치는 적의 사격과 포화를 무릅쓰고 상륙을 강행하였다. 전면에 있는 적의 초소와 좌우 고지에 위치한 박격포와 기관총 진지에서 뿔어져 나오는 사격망을 뚫고 상륙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없었다.

곧이어 양측 간에 치열한 사격전이 전개되었다. 장사리의 새벽 해안은 불빛과 소음으로 가득 찼다. 일부 대원들은 강한 파도에 휩쓸려 희생되었으며 상륙 중에도 적의 사격에 쓰러지는 대원들이 속출하였다. 작전에 참

35) 해군본부 전사편찬감실, 『해군사 제1집, 124~125.

전하였던 장사상륙작전동지회 사무국장 배수용은 훗날 “당시의 처절했던 상황이 머릿속을 스쳐갈 때마다 지금도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것을 느낀다”고 회상하였다.³⁶⁾

제1차로 상륙을 완료한 제28연대(제1중대) 대원들은 문산호에 대해 사격을 가하고 있는 적의 도치카로 육박하였다. 양측 간에 수류탄전이 전개되는 중에 선두에서 대원들을 지휘하던 제28연대장 이영훈 대령(중위)이 적이 쏜 탄환에 맞아 전사를 하고 말았다. 상륙부대는 09:00경 전원이 상륙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상륙작전 중에 연대장이 전사하고 다수의 병사가 사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탄약을 해중에 유실하게 되어 부대원의 사기가 극도로 약화되었다. 당시 유격대 부관이었던 백운봉의 회고에 의하면, 상륙시에 60여명이 전사하고 9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적에게 포위된 상륙부대는 이 상황을 미 구축함에 알리기 위해 전마선 1척을 부상병 20명과 경계병을 편승시켜 출발하도록 했으나, 높은 파도에 휩쓸려 배가 전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9명이 익사하고 말았다. 이에 미 구축함과의 연락이 두절되자 선원들도 상륙하여 유격대와 함께 전투에 참가하였으나, 선장 이하 7명이 전사하는 등 고전을 겪었다.³⁷⁾

출발 전에 명부대장은 육본 관계관들로부터 유격대가 상륙 시에 유엔군 측으로부터 항공폭격과 함포지원을 해줄 것이라고 들었다. 상륙전에 먼저 유엔 해·공군이 북한군 진지에 화력 집중하여 적의 화력을 무력화시킨 후 유격대가 상륙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문산호를 인도하여 장사동으로 출동한 것은 미 구축함 엔디코트함 1척뿐이었다. 엔디코트함은 도착 즉시 함포지원 사격을 실시하였다. 최초 계획되었던 항공기에 의한 공중지원은 아예 없는 상황이었다.

항공지원 계획은 그야말로 계획에 불과한 것이었다. 실제로 육군본부는 공군본부나 유엔공군과 항공지원에 관해 논의한 적이 없었다. 한국 해군으로부터 문산호가 지원된 사실은 상륙작전 자체에 관해 해군본부와 협의가

36) 육군본부, 『한국전쟁시 학도의용군』, pp.58~59.

37) 해군본부 전사편찬감실, 『해군사』 제1집, p.125.

있었으며 또 미 해군 엔디코트함이 지원되었다는 사실은 유엔 해군과도 지원협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군은 아예 지원이 없는 상황이었다. 정일권 육군 총참모장의 명령에 의하면, “유격대대장은 항공기와의 연락규정 수령 차 장교 1명을 출두케 하라”고 한 것으로 보아, 한국 또는 유엔 공군으로부터 공중지원을 검토하였음은 파악할 수 있으나, 실제 작전에서는 왜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2) 구조와 철수작전

문산호가 좌초되었다는 사실이 육본에 보고되자, 육본은 즉시 그 사실을 유엔 해군에도 보고하여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동해안 삼척 전방 해상에 위치하고 있던 동해안전대사령관 하트먼 소장은 엔디코트함이 중계하는 해안사격 요청을 받고, 그의 기함 헬레나호로 뒤늦게 조난 해역에 도착하였다. 그는 먼저 헬리콥터를 보내 해안의 상황을 확인하도록 했으나, 기상 악화로 피아의 식별마저 곤란한 상황이었다.

하트먼 소장은 일기가 다소 호전되자 다시 두 번째 헬리콥터를 투입하였고, 이때 구조되어 온 해리슨 중위와 쿠퍼 상사를 통해 비로소 대체적인 해안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³⁸⁾ 그러나 그는 당시의 상황과 기상 상태로 보아 자체 보유한 소형 주정르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이 위급한 상황을 호전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는 조난선을 구조하기 위한 선박을 즉시 파견해 주도록 부산에 무전으로 요청하는 한편, 함포 사격으로 상륙 부대를 지원하였다.

급보를 접한 해군본부는 곧 부산항에서 구조용 예인선 LT 1호를 급파하였다. 22:00경 출항한 LT 1호는 기상상태가 좋지 않아 16일 07:00 현지에 도착하여 구조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문산호가 깊이 좌초되어 일몰과 동시에 감포로 돌아왔고, 해군 304정도 출동하였으나 풍량이 심하고 시계가 불량하여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구룡포로 돌아왔다.³⁹⁾

38) Walter Karig, *Battle Report: The War in Korea.*, p.246.

39) 해군본부 전사편찬감실, 『해군사』 제1집, p.126.

하트먼 제독은 다음날(17일)도 좌초된 문산호의 구조는 기대할 수 없게 되자, 헬리콥터 편으로 이명흠 유격대장을 불러 다른 구조선이 오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시키고 다른 애로사항을 물었다. 헬레나호에는 동승하고 있던 한국해군 연락장교 정익조 소령이 통역을 담당하였다. 이 대위는 식량과 탄약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함포의 계속 지원을 요청하였다. 하트먼 제독은 이 대위를 격려하여 해안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휴대용 식량을 해안으로 지원해 주었다.⁴⁰⁾

문산호의 구출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은 해군본부는 9월 18일 아침 즉시 육군본부에 “현 상륙부대를 구출하려면 증원부대를 증파하거나 또는 철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통보하였다. 그리고 상륙부대의 철수를 지원하고자 해군중위 김형봉 책임장교로 조치원호(LST)를 현지에 급파하였다. 동시에 이날(18일) 15:00경 항공기를 현지에 보내어 전단을 살포하여 구조 LST가 곧 현지에 급파되며 상륙부대는 선박 근처를 확보하고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약간의 탄약과 의료품을 투하해 주었다.⁴¹⁾

마침내 9월 19일 06:00, 부산에서 급파된 해군 수송선인 LST 조치원호가 조난 현장에 도착하였다.⁴²⁾ 당시 부근 해상에는 미군 함대 LT 2척과 LST 3척이 부유하여 지원하고 있었다. 현지에 도착한 조치원호는 미군 LT 미육군소령 스피어 함장의 지시로 곧 문산호 구축작업에 착수하였다.⁴³⁾ 스피어 소령은 곧장 문산호로 올라와 구조작업을 상의하였다.⁴⁴⁾ 논의를 통해 먼저 환자를 싣고 제28연대, 제37연대, 사령부 제32연대, 제29연대의 순위

40)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인천상륙작전』, p.127.

41) 해군본부 전사편찬감실, 『해군사』 제1집, p.126.

42) Walter Karig, *Battle Report: The War in Korea*, p.250에는 9월 18일 이른 아침에 도착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어, 자료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43) 미 육군 스피어 소령은 미 상륙전 훈련센터 소속으로 상륙작전 전문가로 한국전 초기작전시 육군으로는 유일하게 미 해군으로부터 해군 십자훈장을 수여받았다. Walter Karig, *Battle Report: The War in Korea*, p.7에는 스피어 소령이 장사동으로 간 것은 유격대에게 큰 행운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44) 육군본부, 『한국전쟁시 학도의용군』, pp.147~148에서는 19일 05:00경 LST 조치원호로부터 미 해군소령 1명이 철수작전을 논의하기 위하여 유격대 사령부가 있는 문산호로 올라왔다고 하였으나, 조치원호의 도착 시간은 06:00이며, 스피어 소령은 미 육군 장교이다.

로 철수 순서가 정해졌다.

스피어 소령은 조치원호를 문산호가 좌초한 북한 약 400야드 지점에 착안할 것을 조언했으나, 선장이 좌초를 걱정하여 거절하자, 직접 조치원호에 뛰어 올라 직접 조타하여 육지로부터 약 30m 지점에 착안시켰다. 그는 곧 높은 파도를 무릅쓰고 해안에 상륙하여 구조작업을 지휘하였다. 이때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조치원호의 해안 접안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었다. 그러므로 조치원호와 육지를 밧줄로 연결한 후 밧줄을 잡고 승선하도록 결정하였다.

유격대원들은 구명대에 5~6명씩 타고 육지로부터 연결된 로프를 잡고 조치원호까지 이동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북한군의 사격이 집중되어 사상자가 속출하였다. 대부분 나이가 어리고 훈련이 부족했던 유격대원들은 파도에 겁을 먹어 밧줄만을 붙들고 떨고 있는 상황이었다. 대부분의 어린대원들이 패닉상황에 빠져 있어 구조가 순조롭지 못하였다.

조치원호가 조난선 북쪽으로 접근하자 한동안 잠잠했던 부근 고지일대에 위치한 북한군의 박격포화가 다시 불을 뿜기 시작하였다. 적은 아군이 다시 상륙을 기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필사적으로 사격을 가해왔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06:30경부터 철수가 시작되었다. 아군 공군기 3대가 접근하는 북한군 진지에 대해 기총소사로 엄호해 주었다. 아군 함포와 항공기가 엄호사격을 개시하여 북한군 방어진지에 로케트포와 네이팜사격이 집중되고 함포가 측방으로 차단사격을 실시하여 적의 화력을 제압하였다. 북한군의 공격이 주춤한 틈을 이용하여 육지와 LST 사이에 밧줄을 연결하고 그 밧줄을 이용해서 보트로 일단 환자들을 수송하기 시작하였다. 환자 수송이 마무리된 후 곧이어 대원들의 철수가 이루어졌다.

대원들은 천신만고 끝에 갑판에 올랐으나 그곳 역시 안전하지가 않았다. 1진으로 승선한 대원들은 적의 박격포탄이 조치원호 갑판에 낙탄되어 상당수 목숨을 잃는 희생을 치렀다. 갑판의 군데군데에 살점과 피가 엉겨 붙어 있었고, 부상한 대원들이 서로 부둥켜안고 통곡하였지만 이미 때는 늦은 상황이었다.

유격대원들은 처음에는 하나의 장비라도 회수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완전

군장한 채로 승선을 시도하였으나, 배에 오르는 도중에 파도에 휩쓸리는 대원들이 속출함에 따라 비무장으로 승선하도록 변경하였다. 대원들은 로프에 주렁주렁 매달려 조치원호로 승선하였다. 도중에 힘이 다하여 엉겁결에 손을 놓은 몇몇 대원들이 파도에 떠밀려 바다 속으로 끌려들어갔다.⁴⁵⁾ 구조작업 중에도 미군 장교 1명이 부상을 당하고 상륙대원들 중 전사 9명, 부상 12명의 피해를 입었다.⁴⁶⁾

이날(19일) 13:00경 결국 조치원호가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아직 해안에는 2개 대대 병력 60명이 남아 북한군과 교전을 계속하고 있었다. 당초 조치원호 승선 완료시간이 12:00경까지 예정되었으나 승선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의 박격포탄과 소총탄이 주위와 함상에 집중되었다. 조치원호 함장은 북한군의 공격으로 LST가 손상될 위험에 놓였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의 승선을 중지하고 떠날 것을 재촉했다. 명부대장은 간곡히 사정하기도 하고 위협도 하면서 대원들의 전원 철수를 독려하여 30여명의 대원들이 더 철수하였다. 상황이 악화되고 설상가상으로 간조가 시작되자 스피어 소령은 결국 밧줄을 절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리하여 조치원호는 7시간에 걸친 구조 작업에 중지부를 찍고 13:33경 해안을 빠져 나와야 했다.

결국 유격대원과 문산호 승조원 등 110명의 부상자를 포함하여 725명을 구출하고 다음날 20일 20:00 부산항으로 돌아오는데 성공했다.⁴⁷⁾ 그러나

45) 후에 알려진 바로는 유격대의 철수작전이 끝나고 난 직후 해변가에 많은 유격대원들의 시체가 떠밀려 와서 동리 주민들이 수거하여 장사를 치러 주었다고 한다. 육군본부, 『한국전쟁사 학도의용군』, p.148. 현재 장사상륙지 일대는 영덕군과 참전자동지회가 국가보훈처의 지원을 받아 장사상륙작전 기념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46) 해군본부 전사편찬감실, 『해군사』 제1집, p.127.

47) 위의 책, pp.127~128. 조치원호에 탑승 구조된 총인원과 부산항에 도착한 시간, 그리고 장사동 해안에 잔류된 인원수 등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Walter Karig, *Battle Report: The War in Korea*, p.254에는 조치원호에는 110명의 부상자 및 선원을 포함하여 총 725명이 탑승 구조되었다고 하였으며, 전사편찬위원회, 『인천상륙작전』, p.128에는 유격대원과 문산호 승조원 등 110명의 부상자를 포함하여 700여명을 구조하였으나, 129명이 전사하였으며, 39명이 잔류하였다고 하였다. 해군본부 정작참모부 군사연구실, 『작전경과보고서』 1-12, 육군본부, 2001, pp.190~194.에는 대원 640명을 승선시킨 LST가 9월 20일 새벽 2시경 무사히 부산항에 귀환했다고 되어 있다. 육군본부, 『한국전쟁과 유격대』, p.63에는 640명의 생존대원들을 승선시켜 9월 20일 06시 부산항에 입항하였다고 하였다.

장사상륙작전에서 대원 139명이 전사하였으며⁴⁸⁾, 조치원호가 철수할 때까지 마지막 지상 엄호부대인 제29연대 제5대대 병력 39명이 미처 배에 오르지 못하고 해안에 남겨졌다.⁴⁹⁾

장사 해안에 잔류한 대원들은 조치원호가 철수한 직후 적에 의해 포로가 되었다. 이들 중 후에 극적으로 탈출한 고규혁은 당시의 절망적이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즉, “우리들은 먼저 승선하는 대원들을 엄호하며 승선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치원호가 문을 닫아 버리고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곧이어 사격을 가하고 있던 적들이 일시에 해안으로 몰려와서 결국 우리들은 포로가 되고 말았다”고 했다. 그는 또 “포로가 된 대원들은 해안에서 하루를 보낸 후 이튿날 북한군의 퇴각대열에 끼여 북으로 끌려갔다. 대원들은 4명 1개조로 북한군 환자 1명씩을 운반했다. 가는 도중에 북한군 여러 부대와 합류하여 행군 대열은 길어졌으며, 어느날 저녁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나는 다른 3명과 극적으로 탈환하여 진격 중이던 아군에 의해 구출되었다”고 했다.⁵⁰⁾

한편 조치원호가 부산항에 도착하자마자 이명흠 부대장은 즉시 결과보고를 위해 즉시 육군본부로 향했다. 그러나 그가 육군본부에 도착했을 때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부딪혔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강문봉 작전국장 이하 상륙작전에 관계하였던 장교들을 만났을 때 모두가 살아 돌아온 것을 보고 크게 놀라고 당혹스러운 표정이었다고 했다.⁵¹⁾ 최초 장사로 출항하기 위한 출정식에서 육군 총참모장까지 배석하여 대대적인 행사를 마련해 준 것에 비해 너무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육본의 사후 조치는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당시의 정황이야 어찌되었든 육본의 조치는 너무나 무책임한 것이었다. 통상 유격전은 극비리에 추진하고 사후에도 극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

48) 국방부의 공식 발표(국방부, 인근 제24176-881호, 1980.7.24)에 근거한 수치이다. 육군본부, 『한국전쟁시 학도의용군』, p.128 재인용.

49) Walter Karig, *Battle Report : The War in Korea*, p.254에는 유격대원 중 32명이 선박으로 돌아오는 것을 거부하고 해안에 잔류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50) 육군본부, 『한국전쟁시 학도의용군』, p.149.

51) 위의 책, pp.149~150.

이란 점을 감안하더라도, 육본 관계관들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유격대를 장사해안으로 투입한 후이나 유격대가 부산으로 귀환한 이후에나 아무런 후속 조치도 없이 방기한 점은 무책임한 것이었다.⁵²⁾

명부대장에 의하면, 보고서를 작성하여 작전국장과 총참모장에게 상륙작전의 전모를 보고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작전을 완료하였다. 유격대 대원들은 부두에서 대기하던 중에 우연히 뿌려진 신문호위를 읽고 난 후에야 자신들이 참여한 장사동 상륙작전이 인천상륙작전 수행을 기만하기 위하여 계획된 양공작전이었음을 알았다고 한다.⁵³⁾

4. 결어-장사상륙작전의 성격

이상으로 육군본부 독립 제1유격대대의 장사상륙작전과 철수과정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결어에 대신하여 장사상륙작전의 성격에 관해서 정리하기로 한다. 장사상륙작전에 투입된 유격대원들은 대부분 어린 학도의용군으로 편성되어 현역 군인들 이상의 투혼을 발휘하며 상륙작전을 수행하였다.

최초 독립 제1유격대대가 육군 총참모장 정일권 소장과 작전국장 강문봉 대령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는 “유격대장은 예하 제1대대를 D일 H시 P장소에 상륙을 감행시켜 동대산을 거점으로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여 제1군단 작전을 유리하게 하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최초의 임무를 고려하면 장사상륙작전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독립 제1유격대대는 문산호의 좌초와 태풍으로 인한 파고 등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명부대장의 지휘 아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륙작전을 전

52) 장사 앞바다에 좌초되었던 문산호도 당시 장사 부근에 거주했던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휴전이후 상당기간까지 처리되지 않고 해안에 방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53) 육군본부, 『한국전쟁시 학도의용군』, p.149.

개하여 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작전에 성공하였다. 교두보의 확보는 장사일대의 북한군뿐만 아니라 포항일대의 북한군주력에 대해서도 위협을 가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적의 주보급로상의 교량을 폭파함으로써 북한군의 주요 병참선인 포항, 영천 방면으로 통하는 국도를 차단하여 적군의 보급 작전을 마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비록 유격대가 많은 피해를 입고 또 적의 배후에서 고립되긴 하였지만 일단 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상륙작전의 목표는 성공적으로 달성한 것이었다.

둘째, 낙동강선 일대의 북한군 주력의 전력을 약화시킴으로써 한국군 제1군단 작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정일권 총장의 명령대로 '아군 제1군단 작전에 유리하게 하라'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것이었다. 당시 낙동강선의 북한군 제2군단은 주력은 형산강 지역에서 부산으로의 진격로를 돌파하기 위해 거의 전력을 투입하고 있었으나, 아군이 후방지역인 장사에 상륙작전을 전개하자 전선에 투입된 일부 부대를 후방 지역으로 전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후방과 퇴로 차단 위협을 느낀 북한군 제2군단은 아군 유격대를 격퇴하고 보급로를 개척하기 위해 제5사단 일부부대를 전용하였다. 이 사실은 낙동강선의 북한군주력의 전력을 약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음을 보여준다.

셋째, 아군의 유격부대가 적의 후방인 영덕지구에 상륙하여 적의 판단을 흐리게 함으로써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었다.⁵⁴⁾ 장사상륙작전은 북한군 지휘부에 심리적이며 전략적인 타격을 주었던 것이다. 당시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국군과 유엔군이 상륙작전을 전개할 것이라는 사실은 판단하고 있었지만, 정확한 상륙지점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군이 동해안 장사 지역으로 상륙작전을 전개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적의 지휘부에게 적지 않은 충격과 혼란을 주었다. 따라서 이는 유격대 최초의 목표인 양공작전 임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의미한다.

54) 「맥아더가 이종훈 부대장에게 보낸 서한」(1960.10.31), 육군본부, 『한국전쟁시 학도의용군』, p.129에 의하면, 맥아더 장군은 장사상륙작전이 인천상륙작전을 지원하는 작전이었으며, 유격대에 참전한 772명은 큰 귀감이 되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장사상륙작전은 전술적인 측면 즉, 작전 계획, 부대 편성, 훈련 및 장비 수준, 해군과 공군 지원 상황, 그리고 구조, 철수, 피해 규모 등 측면 - 에서는 무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한 작전이었으나, 전략적인 측면 즉, 육군본부 지휘부가 목표로 설정하였던 국군 제1군단 전선을 유리하게 하고 나아가 인천상륙작전을 기만한다는 측면 - 에서는 성공한 작전이었다고 평가된다.

(원고투고일 : 2011. 4. 1, 심사수정일 : 2011. 4. 21, 게재확정일 : 2011. 4. 29)

주제어 : 인천상륙작전, 장사상륙작전, 군산상륙작전, 기만, 양동, 양공작전, 포항전투, 명부대, 이명흠, 문산호, 상륙정

<ABSTRACT>

The *Jangsa's* Landing Operations during the Korean War

Yang, Yong-jo

This study is on the *Jangsa's* Landing Operations right before the *Incheon's* Landing Operations during the Korean War. At night on September 12, a Combined Forces of the ROK, US and British troops dared to make a feint amphibious operations in *Gunsan*, while on the east coast for two consecutive days, on September 14 and 15, UN aircraft hit hard on the *Samcheok* area, another possible landing area, to divert enemy's concern on the west.

The student volunteer soldiers of the ROK 1st Independent Anti-Guerrilla Battalion led by Capt. *Lee Myeong-hum* (Later renamed *Lee Chong-hun*) even practically landed at the beach in *Jangsa*, south of *Pohang*, at dawn on September 15.

Unfortunately, however, as their Landing Ship Dock had run aground because of the typhoon *Kezia*, they were exposed to enemy troops there. They fought against the enemy on the beach capturing a nearby hill position. But they withdrew suffering heavy losses.

In brief, the *Incheon's* Landing Operations had been in progress under a carefully thought-out deception operations. Operational security measures had been so thorough that the US Far East Command had not transmitted their reports to the Joint Chiefs of Staff at the right moment and the JCS misunderstood the FEC.

This *Jangsa's* Landing Operations is analyzed that it was successful in

the view they have achieved the operational purpose in spite of many victims of soldiers.

Key Words : *Incheon* Landing Operations, *Jangsa* Landing Operations, *Gunsan* Landing Operations, Feint Operations, The Battle of *Pohang*, *Myeong* Battalion, *Lee Myeong-hum*, *Munsan* Ship, LST